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타인연민이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Attitude, Other-Compassion and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s

조명주*, 전원희**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Myoung-Ju Jo(nicupicu@cup.ac.kr)*, Won-Hee Jun(jwh917@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타인연민이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료는 2018년 3월에 경상남도 지역의 192명의 간호대학생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SPSS/WIN 24.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관계 분석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는 성태도($r=-.31, p<.001$)와 타인연민($r=-.31,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설명변수는 성태도($\beta=-.29, p<.001$), 타인연민($\beta=-.30, p<.001$), 학년($\beta=.27, p=.003$)이었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4.4%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성교육과 연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미혼모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 중심어 : | 간호대학생 | 성 | 연민 | 태도 | 미혼모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 on nursing student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192 nursing students mothers in one nursing school in Gyeongnam Province in march, 2018. Data were analys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WIN 24.0 program.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 in nursing student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exual attitude($r=-.31, p<.001$) and other-compassion($r=-.31, p<.001$). The factors that had an effect on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 were sexual attitude($\beta=-.29, p<.001$), other-compassion ($\beta=-.30, p<.001$), and grade ($\beta=.27, p=.003$); the explanatory power was 24.4%. In developing sex education and compass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ontents that can enhance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

■ keyword : | Nursing Student | Sex | Compassion | Attitude | Unwed Mother |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 중반 이후 결혼의 지연과 기피로 일인 가구의 증가 뿐 만 아니라 이혼과 같은 가족의 해

체가 늘어나면서 한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되었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와 자녀로 구성된 미혼모 가족은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이중적 성규범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의 영

* 이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NRF- 2017R1C1B5017460).

접수일자 : 2019년 01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5월 02일

수정일자 : 2019년 03월 27일

교신저자 : 전원희, e-mail : jwh917@hanmail.net

향으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다[3]. 미혼모는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인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크고, 동성애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집단이다[4]. 미혼모가 호소하는 고통 중 하나인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사회적 거부와 고립, 사회적 지지의 결핍, 낮은 지위와 같은 불평등을 초래하여[3] 미혼모들을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한다[2].

미혼모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이용하게 되는 의료 기관에서도 차별적 대우와 부정적 시선을 경험하기도 한다[3]. 미혼모들은 자녀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뿐 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주변 지지체계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심리적 지지체계가 부족하다[5]. 우리사회의 부계 혈통주의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에 대한 이중적 관점의 영향으로 의료인들도 미혼모에 대해 부정적이고 차별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대상자의 상황과 무관하게 공평하게 대해야 하는 책임감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와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1]. 이러한 의료인의 갈등과 태도가 돌봄 제공시 미혼모에게 전달되어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남녀의 성관계 대한 사회적인 수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혼전 성경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중적 태도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일조한다[3]. 선행연구[6][7]에 따르면, 청소년과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이 미혼모에 대한 인식에 관련이 있었다. 성태도는 성행위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계화되고 일관적인 사고, 감정 및 행동의 양식이다[8]. 개인이 어릴 때부터 접해온 사회문화적 환경 내에서 학습된 부분과 개인의 경험과 성격 특성 부분의 영향을 받게 되는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따라서, 보수적인 성태도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자신의 성태도와 가치관은 대상자 간호시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간호사의 성태도가 보수적일 때 대상자의 성 건강을 다루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회피하게 된다[10]. 간호사는 대상자의 안녕을 도모해야 하므로 대상자의 성 건강을 다룰 때 존중과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11].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

학생들은 자신의 성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황에 대한 돌봄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하려는 관심이 조화를 이루는 '초연한 관심'의 역할 도덕을 잘 수행해야 한다[12]. 인간에 대한 관심과 돌봄에 초점을 둔 느낌과 생각, 행동 및 이러한 사람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경향성을 연민(compassion)[13][14]이라고 한다. 타인연민은 타인의 주체적 세계를 인식하는 것[15]으로 인간평등과 존엄성에 근거한다. 이는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는 권위주의에 의거하여 타인의 삶의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염려와 슬픔을 느끼는 동정[16]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연민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과의 공존과 협동이라는 긍정적 시민의식과 생명존중의식의 발달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14]. 그러나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이 자기중심성의 증가로 사회적 약자를 공감하고 수용하기보다는 기존의 편견이 강화되어 혐오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17]. 오늘날의 교육 또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의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 교육하기 보다는 개인의 역량 향상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18]. 공감과 존경 및 이타심과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을 포함하는 연민은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에 필요한 전문가적인 특성으로[13]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다. 선행연구[19]에 따르면, 간호대학생들의 타인연민이 부족할수록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혐오감과 편견을 가졌다. 즉, 간호대학생이 타인연민 정도가 부족하면 임상현장에서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일반인[20], 청소년[6][21]과 대학생[6][7]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측정된 연구는 있으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 및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성태도, 타인연민이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태도, 타인연민, 미혼모에 대한 태도 수준을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태도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태도, 타인연민과 미혼모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대상자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타인연민,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정도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대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는 경상남도 U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의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 크기(effect size) .15, 검정력($1-\beta$) .90, 독립변수 9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대상자는 141명이었다. 회수율 80%와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92부를 회수하였으며, 192부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총 7문항으로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년, 형제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문항과

본인이 지각한 부모의 성태도와 본인이 지각한 자신의 성태도의 성 건강 특성 2문항, 미혼모 접촉 여부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성태도

성태도는 호선민[22]이 개발하고, 우근희[23]가 수정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으로 성에 대한 생각(쾌락 유희적 성) 11문항, 혼전순결 허용성 7문항, 성허용성 6문항, 동성애 허용성 5문항, 낙태 허용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성태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우근희[23]의 연구에서 성태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하위영역별 .73~.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쾌락유희적 성 .69, 혼전순결 .81, 성허용성 .46, 동성애 .94, 낙태 .74이었다. 신뢰도 계수가 .60 미만이면 도구의 신뢰도 및 일관성이 제한적이며 무작위 오차가 높으므로[24] 신뢰도가 .60이하인 성허용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허용성을 제외한 전체 신뢰도는 .86이었다. 성허용성은 선행연구들[8][23]에서도 .66~.73으로, 다른 하위영역들에 비해 신뢰도 계수가 낮은 영역이었다. 이는 문항 중 '성관계를 원할 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와 같은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성허용성 이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와 같이 성허용성의 정도 차이가 매우 크고, 간호대학생의 경우 대학에서의 전문직 직업윤리 교육의 영향으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3 타인연민

타인연민은 Sprecher와 Fehr[13]가 개발한 가까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나 전체 인류, 구체적으로 가까운 사람 세 종류로 구분하여 각 21문항으로 구성된 연민적 사랑척도(CLS; Compassion love scale)를 김완석과 신강현[12]이 가족이나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친지판과 낯선 사람이나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판의 각 12문항으로 단축하여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아주연민사랑척도(ACLS; Ajou Compassionate Love Scale)로 측정하였다. 각 판의 문항의 내용은 동

일하나 참조의 대상을 친구나 부모와 같은 가까운 사람(친지판), 자신이 모르는 낯선 사람이나 인류 전체(일반인판)로 달리하는 24문항으로 구성되며, 1점(전혀 아니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연민을 아주연민사랑척도의 친지판과 일반인 판의 합산 값으로 측정하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연민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친지판 .91, 일반인판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친지판 .92, 일반인판 .95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5이었다.

1.4 미혼모에 대한 태도

미혼모에 대한 태도는 김현호[25]가 개발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미혼모와 함께 있다면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와 같이 미혼모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부' 5문항, '미혼모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와 같은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는 '편견' 5문항, '미혼모는 주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와 같이 미혼모에 대해 가엾게 여기는 인식을 나타내는 '동정' 5개 문항, '미혼모는 책임감이 강하다'와 같이 미혼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긍정' 5문항,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거부', '편견', '동정', '긍정'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미혼모에 대한 태도 전체 점수에서 '거부', '편견', '동정'의 세 영역과 반대되는 '긍정' 문항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거부 .88, 편견 .84, 동정 .67, 긍정 .80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83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경상남도 U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간호학과에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학과장에게 협조 승인을 받고 연구보조원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권리 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의 작성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는 소

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P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CUPIRB-2017-044)을 받았다.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필요성, 연구 참여시 익명성과 비밀보장 및 연구 참여 중 언제든지 참여 의사의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였으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코드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자료는 SPSS 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태도, 타인연민, 미혼모에 대한 태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 분석으로 파악하였으며,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192명 중 남학생이 26명(13.5%), 여학생이 166명(86.5%)이었으며, 나이는 20세 이하가 85명(45.0%), 21-25세가 85명(45.0%), 26세 이상이 19명(10.0%)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49명(25.5%),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47명(24.5%), 4학년이 49명(25.5%)이었다. 형제관계는 여자형제만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9명(41.1%), 남자형제만 있는 경우가 78명(40.6%), 여자형제와 남자형제 모두 있는 경우는 25명(13.0%)이었으며, 형제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0명(5.2%)이었다. 본인이 지각한 부모의 성태도는 '보수적'이 83명(43.2%), '보통' 86명(44.8%), '개방적'이 23명(12.0%)이며, 본인이 지각한 자신의 성태도는 '보수적'이 35명(18.2%), '보통'이 103명(53.6%), '개방적'이 54명

(28.1%)이었다. 미혼모 접촉 여부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6명(18.9%),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54명(81.1%)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92)

변수	범주	n(%)
성별	남	26 (13.5)
	여	166 (86.5)
나이(세)	≤ 20 ^a	85 (45.0)
	21~25 ^b	85 (45.0)
	≥ 26 ^c	19 (10.0)
학년	1 ^a	49 (25.5)
	2 ^b	47 (24.5)
	3 ^c	47 (24.5)
	4 ^d	49 (25.5)
형제관계	여자형제	79 (41.1)
	남자형제	78 (40.6)
	모두 있음	25 (13.0)
	형제 없음	10 (5.2)
본인이 지각한 부모의 성태도	보수적	83 (43.2)
	보통	86 (44.8)
	개방적	23 (12.0)
본인이 지각한 자신의 성태도	보수적	35 (18.2)
	보통	103 (53.6)
	개방적	54 (28.1)
미혼모 접촉 여부	있다	36 (18.9)
	없다	154 (81.1)

2. 대상자의 성태도, 타인연민,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정도

대상자의 성태도 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3.43점이었고, 타인연민은 7점 기준으로 5.04점이었다. 미혼모에 대한 태도는 5점 기준으로 2.18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거부' 1.47점, '편견' 1.83점, '동정' 2.86점, '긍정' 3.44점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성태도, 타인연민, 미혼모에 대한 태도 정도 (N=192)

변수	평균±표준편차	척도 범위
성태도	3.43±0.55	1-5
	2.91±0.48	
	3.80±0.88	
	3.50±1.02	
	3.51±0.67	
타인연민	5.04±0.89	1-7
	5.43±0.88	
	4.65±1.12	
미혼모에 대한 태도	2.18±0.42	1-5
	1.47±0.57	
	1.83±0.62	
	2.86±0.66	
	3.44±0.67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차이 (N=192)

변수	범주	미혼모에 대한 태도									
		전체		거부		편견		동정		긍정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성별	남	2.33±0.40	1.87	1.67±0.58	1.90	1.98±0.55	1.41	2.65±0.61	-1.75	3.01±3.51	-3.64
	여	2.16±0.42	(.062)	1.44±0.56	(.058)	1.80±0.62	(.161)	2.90±0.66	(.081)	3.51±0.64	(.001)
나이(세)	≤ 20 ^a	2.06±0.39	8.67	1.38±0.44	3.81	1.64±0.51	7.26	2.72±0.66	4.93	3.54±0.67	3.06
	21~25 ^b	2.24±0.43	(<.001)	1.50±0.63	(.024)	1.94±0.68	(.001)	2.94±0.68	(.008)	3.41±0.66	(.049)
	≥ 26 ^c	2.44±0.34	a,b,c	1.75±0.73	a/c	2.08±0.57	a,b,c	3.17±0.43	a/c	3.14±0.60	*
학년	1 ^a	2.10±0.39	6.60	1.36±0.42	3.27	1.76±0.45	7.95	2.75±0.65	4.45	3.51±0.76	1.92
	2 ^b	2.16±0.41	(.001)	1.51±0.60	(.023)*	1.70±0.62	(<.001)	2.71±0.59	(.005)	3.29±0.71	(.128)
	3 ^c	2.08±0.42	a,b,c,d	1.35±0.48		1.67±0.59	a,b,c,d	2.84±0.73	a,b(d)	3.59±0.62	
	4 ^d	2.39±0.41		1.66±0.69		2.18±0.66		3.14±0.59		3.36±0.53	
형제관계	여자	2.14±0.45	1.61	1.42±0.56	2.35	1.75±0.60	1.30	2.73±0.64	2.12	3.37±0.62	1.78
	남자	2.26±0.39	(.189)	1.60±0.58	(.074)	1.93±0.66	(.277)	2.92±0.68	(.099)	3.41±0.70	(.153)
	모두 있음	2.11±0.37		1.34±0.57		1.80±0.53		3.03±0.68		3.59±0.63	
	형제 없음	2.06±0.47		1.30±0.41		1.68±0.59		3.04±0.44		3.80±0.83	
본인이 지각한 부모의 성태도	보수적	2.17±0.44	0.06	1.49±0.57	1.17	1.82±0.63	0.28	2.92±0.70	0.63	3.50±0.77	1.27
	보통	2.18±0.39	(.945)	1.42±0.50	(.313)	1.81±0.56	(.758)	2.83±0.64	(.533)	3.35±0.58	(.282)
	개방적	2.21±0.50		1.62±0.80		1.83±0.62		2.78±0.61		3.54±0.56	
본인이 지각한 자신의 성태도	보수적	2.28±0.43	1.51	1.55±0.58	0.39	1.99±0.61	2.03	3.01±0.66	1.38	3.35±0.56	0.74
	보통	2.18±0.37	(.225)	1.46±0.52	(.676)	1.83±0.52	(.134)	2.86±0.62	(.254)	3.42±0.63	(.480)
	개방적	2.12±0.50		1.44±0.66		1.72±0.76		2.77±0.73		3.52±0.79	
미혼모 접촉 여부	있다	2.06±0.40	-1.92	1.32±0.46	-2.07	1.75±0.53	-0.84	2.61±0.73	-2.62	3.42±0.81	-0.12
	없다	2.21±0.42	(.060)	1.51±0.59	(.042)	1.85±0.64	(.402)	2.92±0.64	(.010)	3.44±0.63	(.908)

* 사후검정시 구간 유의한 차이 없음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태도는 나이($F=8.67, p<.001$), 학년($F=6.6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에서 21-25세, 26세 이상 집단이 20세 이하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4학년이 1~3학년에 비해 높았다. 하위영역별로는 '거부'에서 나이($F=3.81, p=.024$)와 학년($F=3.27, p=.023$), 미혼모 접촉 여부($t=-2.07, p=.042$)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편견'은 나이($F=7.26, p=.001$)와 학년($F=7.9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정'은 나이($F=4.93, p=.008$), 학년($F=4.45, p=.005$), 미혼모 접촉 여부($t=-2.62, p=.01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긍정'은 성별($t=-3.64, p=.001$)과 나이($F=3.06, p=.04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4. 성태도, 타인연민과 미혼모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대상자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는 성태도($r=-.31, p<.001$)와 타인연민($r=-.31,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타인연민의 정도가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표 4].

표 4. 성태도, 타인 연민과 미혼모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N=192)

변수	성태도 r(ρ)	타인 연민 r(ρ)
타인연민	.06 (.403)	
미혼모에 대한 태도	-.31 (<.001)	-.31 (<.001)

5.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성태도와 타인연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나이와 학년을 예측 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이는 '20세 이하', 학년은 '4학년'을 기준 범주로 하여 가변수 처리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 범위가 0.990~0.993으로 0.1 이상이었고, Durbin-Watson 값은 2.07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분산팽창인자인 VIF는

1.008-1.010으로 10 미만이어서 투입된 변수들은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F 통계량은 15.62($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Adjusted R^2)은 24.4%로 나타났다.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태도($\beta=-.29, p<.001$), 타인연민($\beta=-.30, p<.001$), 학년($\beta=.27, p<.001$) 순 이었다[표 5].

표 5.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192)

변수	B	SE	β	t	ρ
성태도	-.22	.05	-.29	-4.49	<.001
타인 연민	-.14	.03	-.30	-4.74	<.001
학년	.26	.06	.27	4.17	.003
$R^2 = .261$ Adjusted $R^2 = .244$ F = 15.62 $\rho <.001$					

* Reference categories: 학년-4학년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미혼모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를 증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43점으로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이는 일반대학생[8]을 대상으로 조사한 3.05점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여대생[7]의 평균 3.55점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행연구[8]에서 성태도는 성별, 연령, 음란물 노출 빈도, 성격형 여부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타인연민 수준은 7점 척도에서 평균 5.04점으로, 미국의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26]에서의 4.88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선행연구[13][26]에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타인연민 척도의 점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학과의 특성상 여자가 많고, 간호학이 인간 돌봄을 다루는 학문이므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타인연민 수준이 높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태도는 5점 기준으로 2.18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거부' 1.47점, '편견' 1.83점, '동정' 2.86점, '긍정' 3.44점이었다. 미혼모에 대한 태도 도구를 개발한 연구[25]에서 점수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도구로 조사한 연구가 없어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 2.18점은 점수만으로 볼 때 비교적 긍정적인 편으로 생각되나,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 대상자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백옥현[21]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미혼모를 우리사회의 보통사람들과 다름없다고 인식하는 건전한 태도를 갖고 있었으나, 미혼모에 대해 '앞길이 걱정된다'가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었고, '불쌍하다'고 인식한 경우도 20% 이상이어서 본 연구에서 '동정'이 '긍정' 다음으로 가장 높았던 결과와 비슷한 결과이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전체 점수를 살펴보면, 나이와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위영역에서는 성별은 '긍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은 '긍정'을 제외한 3개의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혼모 접촉 여부는 '거부'와 '편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째, 미혼모에 대한 태도 전체 점수와 하위 영역 중 '편견'에서 '나이'는 '21-25세'와 '26세 이상'인 군이 '20세 이하'인 군보다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 또한 하위영역 중 '거부'와 '동정'에서 '26세 이상'이 '20세 이하'보다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며, '긍정'에서는 구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나이가 적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대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미혼모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백옥현[21]과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모의 사회적 거리감이 더 크다고 보고한 임애덕[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미혼모에 대한 태도 전체 점수에서 '학년'은 4학년이 1, 2, 3학년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고, '거부', '편견', '동정' 세 하위영역에서도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편이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 시기가 3월인

것을 고려하면, 1, 2, 3학년은 이론 교과 수강 경험만 있고 임상실습을 거의 하지 않은 시기인데 반해 4학년의 경우 임상실습 경험이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미혼모에 대한 태도 중 '긍정'과 관련된 하위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혼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미혼모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우호적이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백옥현[21]과 임애덕과 최승희[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남성들에서 비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8]의 결과를 고려할 때, 여전히 한국사회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이종적인 성규범과 가족중심적 사고의 영향을 볼 수 있다[5]. 또한 여성들이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것은 미혼모는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동성으로서의 연대감[20]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미혼모에 대한 태도 중 미혼모 접촉 여부는 하위영역 중 '거부'와 '동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미혼모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미혼모의 학습권 인식 수준이 높아졌던 선행연구[29]와 유사한 결과이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교육이 필요하다[27].

본 연구에서 미혼모에 대한 태도는 성태도와 타인연민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타인연민의 정도가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중·고·대학생들에서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미혼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던 선행연구들[6][2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타인연민과 유사 개념인 공감 정도가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연구결과[19]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태도, 타인연민, 학년 순이었고, 설명력은 24.4%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은 성태도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면 미혼모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성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미혼모에 대한 거리감이 컸던 선행연구들[20][27]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간호사는 성 건강 간호를 수행하면서 교육과 상담을 담당해야 하므로 성

건강 지식과 기술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가 요구된다[30]. 그러나 우리나라의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성태도는 보수적인 편이며, 이로 인해 성 건강 간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30].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미래의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상자의 성 관련 문제에 대해 관리자·교육자·상담자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성태도를 점검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성 문제를 논의하는데 장애감이 없도록 학부 교육과정에서 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접할 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개방적 성태도를 넘어 분별력이 없는 성태도는 성을 왜곡시키고, 성 매개성 감염과 성적 일탈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치관 교육이 요구된다[31].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두 번째 영향 요인은 타인연민이었다. 타인연민은 건강 돌봄의 본질이며, 사랑과 존경 어린 돌봄 뿐만 아니라 상대의 고통에 대한 우려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32]. 또한, 환자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연민적 돌봄 행위는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의사소통 등에서도 나타난다[33].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타인연민이 높은 간호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교육과 공감 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연민 반응의 의식적 구조화를 강화해야 한다[34][35].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세 번째 영향 요인은 학년이었다. 졸업 학년의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경험을 통한 고정관념이 다른 학년에 비해 고착될 수 있는 시기이다.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간호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혼모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강의, 역할극, 시뮬레이션, 워크숍 형식 등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태도, 타인연민이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태도는 나이와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태도, 타인연민, 학년이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지역 1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 국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태도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는데, 간호대학생과 미혼모 점점 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1] 성정현, 김희주, 이미정, 박영미, “미혼모들의 경험을 통해 본 공공서비스 전문가들의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404-418, 2016.
- [2] 이용우, “한국사회 미혼모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1호, pp.97-115, 2017.
- [3] 김희주, 조성희, 김지혜, “미혼모 차별 경험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56권, pp.169-196, 2017.
- [4] 김혜영, 안상수,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인식,” 제52차 여성정책 포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5] 김희주, 권종희, 최형숙, “양육 미혼모들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6권, 제6호, pp.121-155, 2012.
- [6] 황인명, 중, 고,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적 자율성, 성태도 및 미혼모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을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7] 조규영, 김윤희, “여대생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pp.6710-6718, 2014.
- [8] 김남희, 박유진, 정현숙,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 성행동(성폭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심리행동연구, 제7권, 제2호, pp.17-42, 2015.
- [9] 이소영, 이경희,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태도,” 정신간호학회지, 제25권, 제5호, pp.356-366, 2016.
- [10] 김혜원, 정연이, 박승미, “한국형 간호사의 성태도와 신념 조사도구,” 한국간호과학회지, 제42권, 제6호, pp.889-897, 2012.
- [11] 정경순, 장군자, 김수진, “간호대학생의 성태도, 자아탄력성과 성적자율성간의 관계,”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8권, 제6호, pp.1361-1370, 2017.
- [12] 강명신, “사회윤리학의 관점에서 본, 의사의 전문직 역할도덕과 ‘초연한 관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pp.135-148, 2007.
- [13] S. Sprecher and B. Fehr, “Compassionate love for close others and human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22, No.5, pp.629-651, 2005.
- [14] 김완석, 신강현, “아주 연민사랑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9권, 제1호, pp.407-420, 2014.
- [15] D. A. Misch and S. M. Peloquin, “Developing empathy through confluent education,” Journal of Physical Therapy Education, Vol.9, No.3, pp.41-51, 2005.
- [16] A. J. Clark, “Empathy and sympathy: therapeutic distinctions in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Vol.32, No.2, pp.95-101, 2010.
- [17] 이은아, “대학생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공감교육 연구-이화여대 <호모 엠파티쿠스: 소통, 공감, 신뢰> 교과목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3권, 제5호, pp.149-168, 2017.
- [18] C. M. Nussbaum, *Not for Profit*, 우석영(역),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서울: 궁리, 2011.
- [19] 조영희, “간호대학생의 공감, 의사소통능력,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정신간호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제25권, 제4호, pp.294-302, 2016.
- [20] 임애덕, 최승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0권, pp.189-202, 2006.
- [21] 백옥현, “청소년의 10대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사회복지 관점의 인식,”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7호, pp.49-77, 2008.
- [22] 호선민,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3] 우근희,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4] S. K. Grove, N. Burns, and J. R. Gray, 박지영역, *근거기반 간호연구의 실제*, 수문사, p.493, 2017.
- [25] 김현호,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태도척도 개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6] J. Y. Hwang, T. G. Plante, and K. Lackey, “The development of the Santa Clara brief compassion scale: an abbreviation of Sprecher and Fehr’s compassionate love scale,” Pastoral Psychology, Vol.56, No.4, pp.421-428, 2018.
- [27] 임애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6권, 제6호, pp.365-384, 2016.
- [28]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pp.117-133, 2005.
- [29] 최수정, 김지연, “청소년기 임신·출산에 대한 태도가 학생미혼모의 학습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고교생의 학생미혼모 접촉경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7권, 제3호, pp.137-156, 2015.
- [30] 장미영,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성건강 간호 장애 요인: 성태도와 신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6호, pp.355-363, 2014.
- [31] 이은미, 김가영, “대학생의 성태도, 부모의 성태도, 우울이 성관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학회지, 제25권, 제3호, pp.155-161, 2017.
- [32] P. R. Steffen and K. S. Masters, “Does compassion mediate the intrinsic religion-health relationship?,”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a publication of the Society of Behavioral Medicine, Vol.30, No.3, pp.217-224, 2005.
- [33] S. Babaei, F. Taleghani, and M. Kayvanara, “Compassionate behaviours of clinical nurses in Iran: an ethnographic study,”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63, No.3, pp.388-394, 2016.
- [34] P. Posadzki, “The transmission of affect:

Compassionate love in clinical and educational settings,” *Integrative Medicine: A Clinician’s Journal*, Vol.9, No.5, pp.46-48, 2010.

- [35] R. L. Cruss, S. R. Cruss, J. D. Boudreau, L. Snell, and Y. A. Steinert, “A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and socialization of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a guide for medical educators,” *Academic Medicin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 Vol.90, No.6, pp.718-725, 2015.

저 자 소 개

조 명 주(Myoung-Ju Jo)

정회원



- 2002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2007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3년 1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

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모·아 간호, 간호교육

전 원 희(Won-Hee Jun)

정회원



- 199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학사)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계명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간호교육